

내 이미 법을 깨달아 애국의 화살을 빼앗으니 그대로는 마땅히 스스로 힘써 가르침의 법을 받아 행하라.  
(法句經·도행품 275절)

#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제 1093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9  
1955.10.13 제3호출판물(가)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3월11일 (수요일)

[ 1 ]

## “함께 할수 있는 일만 동약인이고자”

### 총학 오는13일까지 신입생 환영주간 설정

제24대 총학생회(회장=이광집·전기4)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을 ‘신입생 환영주간’으로 설정하고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각 단대별 문화행사를 마련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일만 동약인’이라는 기치를 내건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현시기 정치정세를 올바르게

신입생과 공유하는 한편 동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행사일정을 보면 지난 9일 학생회관 로비에서 방영된 ‘87년 대선 당시 백기완후보 유세장면’ 비디오 상영을 시작으로 지난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해 겨울 푸른빛 플렉카드’ 영화상영이 이어졌다.

오늘(11일)과 내일(12일)은 중앙당에서 오후6시에 젊은 영화인들의 모임인 남누리영화상의 16%영화 ‘이영희는 영웅들’이 사회가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공개상영이 시작된 이영희는 현실모습 속에 방황하는 한기정의 모습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을 미학적으로 다루고 있어 신입생들의 인식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3일에는 ‘과업전야가 오후5시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입생 환영주간에 각 단대학생회에서도 지난해 부생사업들을 사진으로 소개하는 사진전, 환영대자보등을 전시해 단체 앞마당을 꾸미는 ‘단체 앞마당 꾸미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중후보 지지 지원단 준비모임과 총학생회는 행사장 주변에서 민중후보 기금 마련을 위해 티셔츠, 라이터 등의 물품판매를 비롯한 모금운동도 벌인다.

또한 총학생회 문화부 주최로 사회사건연구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기획사진전 ‘여기, 민중의 삶이 있습니다.’가 다양한

## 병원 신축부지 매입 분당 신도시 5백45평

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한 경주캠퍼스 한의과대 및 의과대 병원부족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학교당국은 분당신도시 개발지역 5백45평을 지난달 26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했다.

이번엔 총17억5천만원에 부자매 매입한 의료시설기반 신축부지는 수도권지역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어 수익사업의 활성화와 외대생들의 임상실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지역 병원건립을 추진해온 한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건립의 마스터 플랜제시와 조속한 병원준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리 등록 실시

제8대 동아리연합회(회장=나형운·철학4)는 올해 각 동아리의 등록특징 신규등록 서류배포와 접수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교수회 규정 개정 12일 대의원회 소집

교수회(회장=김장호·국어교육)는 규정상의 문제로 인해 서울·경주캠퍼스별 의결이 가능하지 못했던 현제를 극복하고자 지난달 26일 소파델양에 서서대 교수총회를 열고 교수회규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고 최종개정은 대의원회에 위임했다.

지난달 10일12일 서울·경주 합동 대의원회를 통한 ‘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이준용·법학)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규정개정작업은 본래 규정(90.8.21 제3차 개정안)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의 주요 조항을 보면 △총회 의결 사항 중 캠퍼스별 총회의결안을 캠퍼스회의결원칙 △중추위원회의 결의를 통한 규정의 혼란방지 및 명료성 △누락된 회계년도의 명시 △각회의 위상에 맞는 의결순위 재조정 등이다.

이로써 서울캠퍼스 현 교수회의 공석인 부회장 및 감사인

## 공대위 구성통해 총선 적극 참여 12일 도서관앞, 등투 결의대회 겸해

총선과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일만동약 실천 결의대회가 제24대 총학생회 총선대책위와 등투소위원회로 오는 12일 오후1시 도서관앞에서 열린다.

이번 결의대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현정권 심판과 민중의 대대 세력화를 위한 총선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진후 지역선진들을 옥수동, 금호동, 용봉동일대에서 벌인다. 이날 결의대회 총선공대위 강령에서는 현정권 집권4년을 총질산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민족통일과 노동해방

은 향한 당면 요구안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한 제2부인 재단혁신과 등록금해결의회의 결의를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민주적인 학사행정 개혁추진 및 지난 9일 진행된 6차협상을 보고한후 재단사무실 집기농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 학원기준등록금액정, 단기간 마스터플랜 제시등의 7개 요구안을 밝혔다.

한편 단대별 학회장의 토론결과를 단대장이 수렴, 오늘(11일) 등록금 책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결정하며, 2·3차 결의대회는 오는 12일과 16일 열린다.

## 동국관 활용방안 확정 연구실·자치공간 적정 조절

동국관(L관)중추공간 활용방안이 관리처와 동국관지역 4개 단과대학생회가 지난 9일 합의에 의해 확정되었다.

(관리기사 5면)

이날 합의된 사항을 보면 △중추 공간(1백64평)을 교수연구실 및 행정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것 △야간강좌열람실을 동국관 M503강의실과 합쳐 5백석 규모로 늘릴 것 △동국관

## 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기간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한정되어 정정원을 접수한다.

정정원은 연두색 OMR카드로 각 단과 대학과나 과사무실에서 교부하고 있다.

## 경주캠퍼스 등투 농성 돌입

경주캠퍼스 제9대 총학생회(회장=전충근, 철학4)는 지난 10일 ‘등록금부담완화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가 열린후인 오후 3시30분경, 각단대장 및 학회장 30여명과 함께 총학생회 집기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2시 집회에는 불교학과를 비롯한 15개학과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총학생회장은 예·결산 자료 공개, 재단전입금확충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부총학생회장 노수연(관경4)군은 6차례 있었던 등록금협상에 대한 보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은 그 구성원들의 지(知)·정(情)·의(意)의 총화로서 어느 다른 소속의 집단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속된 각자의 인격이나 품위·의지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성숙된 민주국가일수록 그 주권이 국민으로 부터 발휘되고 있음에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보수

ratio(지배·권력)의 합성으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의 4성제급 중에서 Ksatriya라는 계급이 있었는데, 이 Ksatriya라는 말 역시 지배나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추대하여 그를 민주(民主)라고 했으며, 그로 하여금 모든 민중을 잘 보호해 주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으니 여기에서 Ksatriya 종족의 조상, 즉 왕족의 기원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민주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권리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 공동체는 후세에 몇몇하기 위해서라도 민중의 주인이 될 사람을 선출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 속에서 한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李 萬

민주(民主)

주권을 의미해서 Kratia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Ksatriya라는 말이 이렇게 지배 내지는 왕족을 가르키는 말로 된 것은 불교의 신화에 의하면, 아주 옛날에 율유가 탄생하고 인지(人智)가 발달함에 따라서 토지 문제가 개인과 개인, 촌락과 촌락 사이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능히 이를 해결할

민주(民主)

주권을 의미해서 Kratia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Ksatriya라는 말이 이렇게 지배 내지는 왕족을 가르키는 말로 된 것은 불교의 신화에 의하면, 아주 옛날에 율유가 탄생하고 인지(人智)가 발달함에 따라서 토지 문제가 개인과 개인, 촌락과 촌락 사이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능히 이를 해결할

민주(民主)

주권을 의미해서 Kratia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Ksatriya라는 말이 이렇게 지배 내지는 왕족을 가르키는 말로 된 것은 불교의 신화에 의하면, 아주 옛날에 율유가 탄생하고 인지(人智)가 발달함에 따라서 토지 문제가 개인과 개인, 촌락과 촌락 사이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능히 이를 해결할



본사 편집국장에 안재봉(전 경원대학교 교학부장)씨가 지난 2일자로 선임 발표됐다.

한편 전임 신관보 편집국장은 학생과 취업계장으로 인사 이동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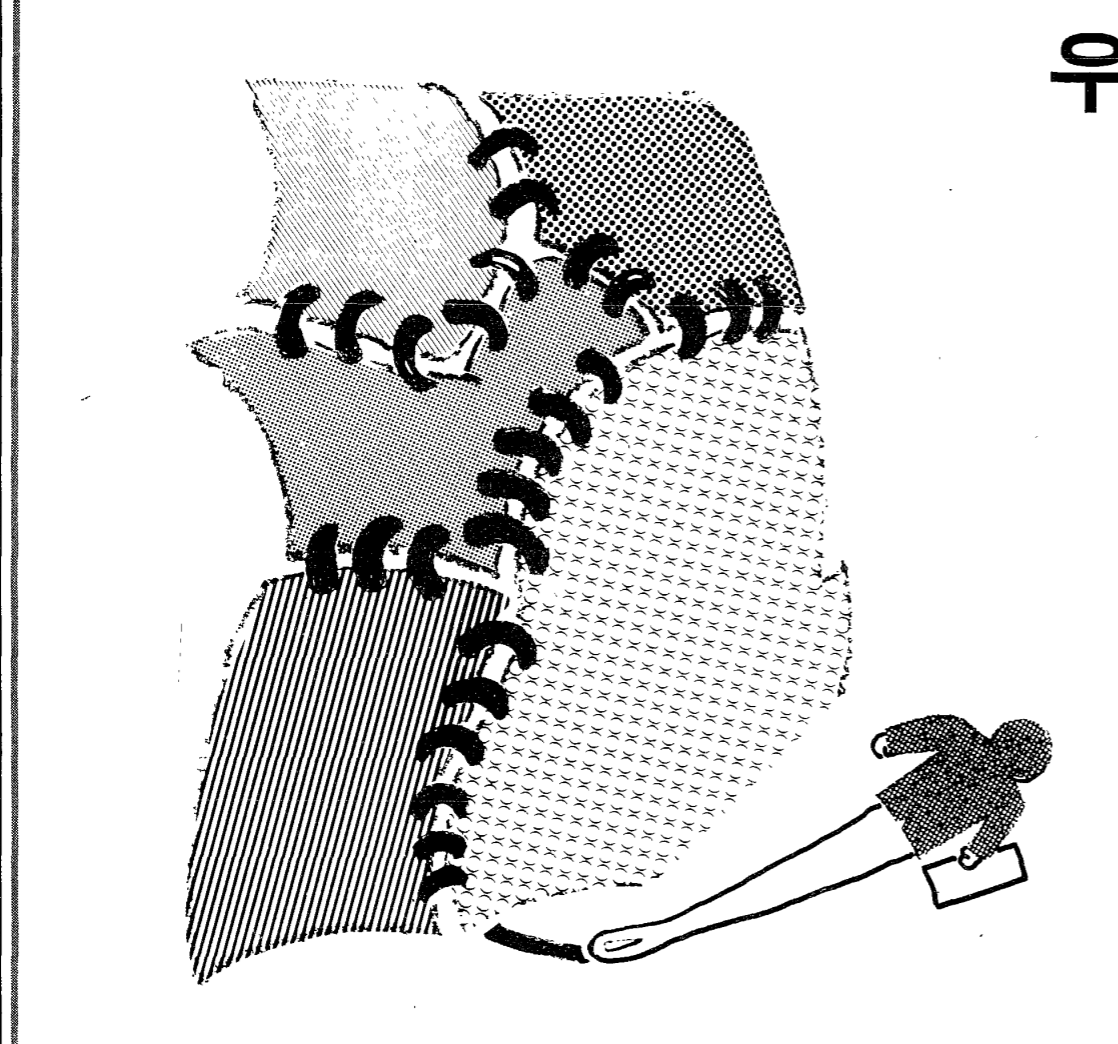
## 제34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의욕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 ○ 명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재학생  
③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사진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 서울 3월26일(목) 오후4시까지  
경주 3월19일(목) 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3월26일(목) 오후5시  
경주 3월19일(목) 오후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 올바른 한표행사를 위한 기획광고②



## 우리가 던질 한표는...

이제 총선이 13일 남았습니다.

호남당이냐, 영남당이냐 하며 지역 감정과 분열을 조장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무시한채 인맥이나 학맥에 의해 귀중한 한표를 함부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표를 행사할지 생각해봅시다.

## 동대신문사

사설

통일단결이 총선승리의 관건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92-93년 권력교체기를 앞둔 첫 관문으로 이후 정치일정에 영향을 좌우할 이번 14대 총선은 제...

헌법개정안은 이번 총선에서 안정적석확보로 제정권을 피하여 보수정권을 지속키위해 풀뚝하고 있다. 더욱이 급권,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역감정을 부추...

한편 통합야당은 사회의 보수안정화 심리확산에 부응, 이번 총선에서 민족민주진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보수중도의 성격...

또한 민족민주진영은 민주주의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집권당을 고립시키고 민주후보를 최대한 당선시켜 민주국회를...

이처럼 기존정체제에 대한 불신과 여론의 의도적 공세의 결과로 빛이 지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여부의식을 극복하고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제자투표실험,...

6공의 4년집권기간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14대 총선을 통해 선택하게 될 정당의 선택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미 학술단체협의...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들어가면서 민족민주진영에게 통일단결은 총선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헌정권과 제도인연에 의한 정치적...

전국연합과 전대원은 총선과 관련 내부이견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사임을 방지할수 없는 상태에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 토론과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결정된...

이런의미에서 총선대책위의 선부위의 공동보조는 그 결함수준이 낮다하더라도 이후 통일단결의 맹아가 될수 있도록 상호 성실한...

급권, 관권을 동원한 집권세력의 물리력에 민족민주진영은 예소하다. 그렇지만 단결과 각성된 대중들의 요구가 하나일때 민주정부를 수립을 향한 발전은 힘을 가질 것이다.

충격...학교 주변에 일본 문화 침투

동국인 자존심 무시하는 가라오케 이용하지 말자

대학과 가라오케. 두개의 단어를 접하는 학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전부터 후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라오케에 가보니 일반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가라오케를 차려놓고 학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우들이 학업에 지치고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곳에 1천원씩 하는 시술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다.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선구자적 역할과, 사회와는 다른 신선함과 바른 문화를 함양하고 창조·계승하는 임무가 있다면 틀림없다.

문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사회의 올바른 그릇 역시 문화에서부터 나타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문화의 현상을 살펴보면 스스로 놀랄 정도의 슬픈 외래문화의 범람속에서 우리는 살고있다.

민족의 자존심, 동국인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가라오케 영업, 학교 앞에서는 원래 그러한 영업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자신의 것, 민족의 삶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젊은 동국인이 어찌 이리도 무심한지, 새내기를 맞는 선배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

유 태 일(사회대 정의과)

일린클터...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겨 있는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망가진채 방치돼있는 기린 안타까워

'내 일 아니니까'식의 생각 버렸으면

새학기가 시작됐다. 여느때와는 달리 새로운 마음으로 가뭇가 교정을 들어왔다. 그러나 해피엔딩 2층로 비에는 다리에 뭇대를 감은 기린이 아직도 서있었다.

몇개월 전부터 망가진채 방치돼 있던 기린, 그 기린의 모습이 내 기분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되돌려주고 하는 것 같아 유쾌하지 못했다.

그 기린은 지금 있는 자리에 있던 건 아니다. 그럼에도 수개월 동안 계속 2층로미 한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인가. 해화원을 사용하는 농대학생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

단순히 많은 학우들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다(2). 하지만 다리가 부러져 각목을 대고 봉대를 감아 버려진 기린을 방치해둔 것에 대해 농대인 가운데 어느 한사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이다.

그리고 기린은 당장 원상복구해서 모든 학우들이 볼 수 있도록 비자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거점처럼 쳐버려 두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한 진 구(농과대 농경과)

연구만이 아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궁금합니다..... 학생생활연구소

새학기를 맞이하여 등약을 찾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본연구소의 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둘째, 상담을 위한 보다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신입생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각종의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 결과는 본연구소 연구

고자 담당교수님과 카운슬러가 상주하고 있다. 본연구소의 주요 상담문제는 성격문제, 진로및 적성문제, 학업문제 등이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현재 본 연구소에서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등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담에도 응하고 있다.

본 연구소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은 본 연구소(교수회관 3층 구내전화 3506)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내방하여 문의 해주기바란다.

고 진 호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신입생기획연재

무조건 아닌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학문연구-여가활동에 편향돼선 안돼

신문에서 사진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누구나가 신문을 펼치면 잘알한 글씨보다는 우선 삽입된 사진은 볼 것이고 이런 사진 혹은 그림은 그 기사의 내용을 함축적이

이런 점에서 '올바른 대학생생활을 위한 제언'이란 신입생대상의 기획연재라는 말을 듣고 기사를 보리 신문은 펼치는 순간 삽입된 사진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대학생생활을 위한 제언'이란 신입생대상의 기획연재라는 말을 듣고 기사를 보리 신문은 펼치는 순간 삽입된 사진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대학생생활을 위한 제언'이란 신입생대상의 기획연재라는 말을 듣고 기사를 보리 신문은 펼치는 순간 삽입된 사진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대학생생활을 위한 제언'이란 신입생대상의 기획연재라는 말을 듣고 기사를 보리 신문은 펼치는 순간 삽입된 사진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다.

기사를 신입생의 편견에 맞추어 읽어내려가면서 처음 든 생각이 조금은 편파·편향적인 글이라는 것이다. 예로 왜곡된 대학관련한 글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은 학문연구의 활동과 낭만적인 요소 등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의 역할만이 서술되었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성민

동학! 광장

목 먹 골... 3월 13일(일) 바로 오늘 동문회 합니다. 상문-은평의 신입생 여러분! 5시에 불상 앞에서 중국요리가 기다립니다.

3월 한달동안 해방 경제학과 학회 '정치경제학 연구회'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92학번 재학생은 모두 오십시오.

온 방 골... 3월 3일(수) 2층모임이 오는 13일(금) 오후5시30분에 본사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기획연재 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

# "눈보다 몸으로 사회를 보라"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년전 3월 필자는 위 문구를 곁에 띄웠으며 그 입학한 대학 교정을 오르내렸다. 신입생을 환영하는 신배들이 쫓아 붙어온 현수막에 쓰여진 그 문구는 시골촌놈이었던 필자에게 낯선 서울만큼이나 부담스러웠다.

역사와 민족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10년이 흐른 지금, 필자는 사회인이 되어 신입생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말을 드려야 할 처지에 있다. 필자는 여러분의 어깨에 이렇게 쓰여진 머리띠를 걸곤 동여매어주고 싶다.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렇다. 이제 대학인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가족과 부모님, 수학공식과 영어단어, 시험지와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 민족의 소망이 강물로 흐르는 역사가, 허리칼린 민족이, 정답없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3월 한달간 아니 1학기 내내 여러분은 아아 고개를 가웃거릴 것이다. 대자보에 적힌 내용을 보고 신배들과 토론을 하고 난 후, 절박한 한 귀퉁이에 서서 여러분은 낯선 세 세계에 당황해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내게 다가오는 이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필자의 첫번째 대응말은 이것이다. 일단 모든 사회현상을 사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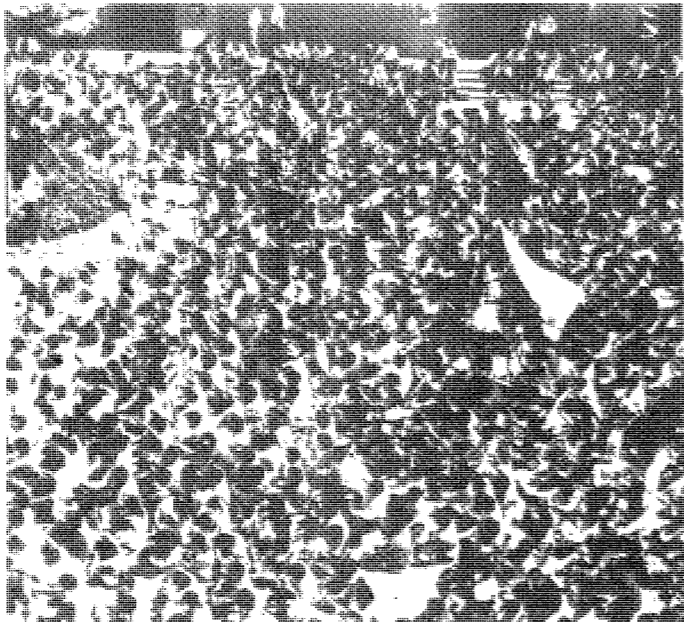
고교때까지의 학교·가정교육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에만 관심을 갖도록 강요해왔다. 특히 고교시절 막바지에 '나 한사람의 대학입시합격'을 위해 모든 정열을 쏟았다. 그것은 곧 사회의 제반현상에 대한 무관심을 강제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개인 스스로의 영달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젊은 지식으로서 사회발전이 이바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는 신문의 어느 특정면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1면부터 끝까지 실린 모든 이 사회의 이야기들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해야 한다. 사회현상에 고뇌하지 않는 젊은 지식은 이미 죽은 것이다. 고뇌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는 발전이 없다. 제반 사회현상의 한 편편에 얽매는 자신을 세우 놓고 '이 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물음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미 도약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첨경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직 기자인 필자는 요즘 국회의원 선거전을 취재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كلما 출마자들

- ### 차 례
1. 대학의 지위와 역할
  2. 사회를 올바르게 보자
  3. 사회변혁의 멀고 긴 대장정



◆실천을 통해 검증되지 않는 인식은 편협해질 수 있으며 인식과 실천이 결합될 때만이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다.

## 사회의 본질 파악...역사인식에서 출발 인식의 구체화 실천통해 검증받아야

이 자신이 민주인사임을 내세우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육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인사임을 자처하는 그 인물의 역사속에서 우리는 그의 본질을 캐내야 한다. 박정호 유신체제의 5공의 독재에 영향받거나 유권자를 배신하여 3당연합을 강행했던 인사들에게 우리는 민주 대신 올바른 이름을 붙여 부를지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성군 매항리에는 주민합의공간의 폭적연속장이 있다. 어느 신문처럼, 현상만 보고 '매항리 주민들은 폭적소용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큰 문제이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본질은 무엇인가. 주민합의군이 그곳에서 폭탄투하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전쟁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를 그 본질로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공부와 선제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민족의 역사책은 부실하게 마련이다. 펜과 종이를 장악해온 집권층은 그 필요에 따라 사실(史實)들을 취사선택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고등학교때까지 배웠던 관제역사교육을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 옛 신문의 연구서에서, 산촌의 노인회관에서 버려졌던 역사들을 주어야 할 것이다.

길고 긴 역사공부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미군정 3년사이다. 왜냐하면 그 3년에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뿌리가 뻗었고 우리민족의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또 열여덟살 조선의 젊은 청년은 해방 3개월만에 '인민위원회 사수'를 외치며 미군의 총에 죽어갔던 한 젊은이였다. 우리민족의 최대 본질국이었던 신탁통치과정은 왜 일어났는가. 미군정 3년사를 바로 이해할 때

여러분은 왜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책상머리에서 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장과 만남을 통해 책을 통한 인식은 주제성을 획득해야 한다. 학교구내 식당의 아줌마, 거리에 군밤파는 아저씨, 남파간첩으로 옥살이하다 출소한 장기수 할아버지, 구경의 공무원 아저씨 등이 세상을 살아가는 갖가지 인생들과의 만남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대학 4년간 민족문제에 관한 책을 다른 친구들 못지 않게 읽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기자생활 4년간 민족문제를 현장취재한 필자는 대학시절 책으로 얻은 인식이 얼마나 판명적이고 추상적이었는가를 새삼 절감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인식의 구체화'에서 멈춘다면 결코 사회를 바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인식의 구체화'가 실천과 결합되지 못할 때 그것은 지식인의 비극으로 직결된다.

신입생 여러분은 지식인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기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적지않은 여러분의 선배들은 '인식의 구체화'단계에서 기회주의에 유혹당해 변절의 길을 걸었다. 곧 4·19가 돌아온다. 수유리 4·19묘지에 묻혀있는 선배들과 한 때 그들과 어깨를 걸었지만 이제는 가감적인 후수인이 된 또다른 선배들이 있다.

변절한 선배들도 대학시절 끊임없이 민족에게, 민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왜? 여러 이유가 있었

지만 '실천연습'의 부족도 한 이유일 것이다. 지식인의 기회주의와 기회주의를 타파하는 실천연습이 대학생들에서부터 중요한 것이다.

변절은 변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심각하다. 4·19혁명의 주체였던 한 변절 정치인은 학생운동을 나라를 망쳐야 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즉 변절은 왜곡된 사회인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말해 끊임없는 실천으로 기회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사회를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끊임없는 실천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힘과 민성으로 사회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뒤따를 때 다음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모임은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해준다. 그래서 진정한 실천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우선 모임을 함께할 새로운 친구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오 언 호  
<월간 '말' 기자>

고전적 의미로서의 대학문화는 '상아탑'이라는 어휘로 상징된다. 학문과 인격을 연마하는 도량, 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하는 지성적 집합체이다. 그러나 대학은 결코 사회와 분리된 진공공간일 수는 없다. 대학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하는 이유도 그 까닭이다. 동시에 대학문화는 시대정신을 계도해야 하는 사상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원은 여전히 그 사회의 엘리트 그룹이기 때문이다. K.A. 스페르스는 '위대한 철인들'이라는 저술에서 '위대함'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열거한 바 있다. 첫째 창조적인 것, 둘째 시대의 조류를 초월하는 예지성, 셋째 참신

다. 저절·퇴폐문화의 축소판인가하면 화염병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격전장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안겨주는 당혹감은 대학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성인의 한결 같은 고뇌며, 인생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 대학문화가 곧 학생운동임을 연상케 하는 까닭은 서클론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유래되었다. 특히 후진 사회에서는 굳은 다음의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학생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신과 민주화의 전통을 겪는 과정에서 대학문화 또한 정치적 이슈에 안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의 길목에 들어서 이즈음, 보다 창조적인 방향

### 교수/칼럼

#### ② 대학문화와 대학인

## 시대의 아픔과 숨결 담긴 문화 필요

성. 물론 대학문화는 이 세가지 위대함의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륜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 막 1세기의 고립된 땅에 있다고 있다. 따라서 그 문화적 영향력 또한 빈약하게 이를테면, 특히 광기에 가까운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양적 팽창을 누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실의 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국의 대학은 60년대 이후 공업화의 물결을 타고 이공계통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 사실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대학의 뒷받침이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대학교육을 기술교육·취업교육의 전초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대학의 소위 인위학과 판도가 시대별로 각기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법·공·의·과 등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까닭도 안정된 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절대적 합수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학과고사의 성격이 대학의 우열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되어 버리면, 대학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구겨지고 만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대학이 사회에게 이끌려 다니는 가치의 전도현상이 팽배해져 가는 것이다. 요즘을 한국적, 아이덴티티 확립이 사회적 관심으로 제기되는 것처럼 대학 또한 스스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색깔, 거만의 개성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문화는 딜레마에 빠져 있

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열렬한 정치관심이 사그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화현상이 냉소주의와 퇴폐주의이다. 소시민적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무관심과 방탕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대학문화의 특징이 자유분방성에 있다보니, 이와같은 문화적 퇴폐주의는 더욱 기술을 부리게 된다. 저속한 말쑥, 야만적 몸짓, 극적불명의 옷차림, 그리고 선정적 사고 등으로 자신을 파괴시켜 가는 것이다. 대학문화의 퇴폐현상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무너뜨릴뿐 아니라, 그 도덕감각을 끊임없이 주변으로 전염시킨다. 우리나라 대학주변의 상가 가운데 학문적 이미지를 주는 곳은 한곳도 없다. 패션·술집·당구장의 물결이 흘러 넘친다. 마치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집단처럼 오히려 심상하다. 결국 문명의 계기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대학인의 결단이야말로 올바른 대학문화의 육성하는 알파이자 오메가인 셈이다.

대학은 지성적 저부심과 함께 미래를 향한 창조적 사고의 산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대학인은 대학인이다 하는 것이다. '학문적 관심'이 지배적이지 않은 교수와 학생이 있다면, 그는 이미 대학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정 병 조  
(국민윤리학과 교수·한국철학)

## 알고 넘어갑시다 동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요즘 교내는 동아리 신입회원 모집 광고로 흥수다. 대학생만이 가지는 계지를 이용한 선전문구와 화려하게 칠해진 대자보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92학번 새내기들.

그러나 이러한 신입생들에게 동아리에 대한 기대만큼 다가오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과정' 중 활동조서 전 거리의 류의 '기내내용증' '이내내용증' 들어간 의식화서적을 체계적으로 탐독하고 선배로부터 의식화교육을 받아...'라는 표현에서 인식되는 동아리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동아리를 '각종 지하운동조직의 온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과연 동아리의 실체가 지하운동조직인가.

사실 대학동아리의 대부분이 사회현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대학내에 유포되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학인의 거대한 물결이기도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용이기도 하다.

고등학교때 형식적인 특별활동과 달리 대학동아리는 조직화되어 있고 그 활동도 또한 다양하다.

고등학교때 형식적인 특별활동과 달리 대학동아리는 조직화되어 있고 그 활동도 또한 다양하다. 우선 우리학교의 동아리를 보면 영인연구회(TIME), 도시민권연구회 등 학술분과, 동국문화회, 다담들등

회원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열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각 동아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신인원회의 감소 사회원들의 잦은 이탈 스승·아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불참이 등은 활발한 동아리활동을 위축시킨다. 특히 신인원회 감소추세와 고학년이 되면서 발생 하는 동아리 이탈 현상은 후 동아리를 1학년때부터

지나가는 '미팅' 정도로 생각자는 않나 우려되기도 한다. 동아리는 '더불어 사는 대학문화의 산실'이다.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실제적 이익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려면 어떠한 것을 아파하고 분개할 것을 분개하고 사랑할 것을 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됨은 '동아리'라는 공간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은 개인주의적인 고민과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애정에 바탕을 두고 사회를 바라보게 한다. (사회부)

### 동대신문의 새 일꾼을 찾습니다

# 140자 원고지에

# 엄힌 이야기

## 동대신문사

동대신문 3년은 우리에게 초능력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취재·편집·교정·강의실·원고청탁 등으로 눈코 뜰새 없었으니 말이다. 또한 대학의 낭만과 지성의 고뇌를 함께 느낀 시절이기도 했다.

-정정수 (69년 취재부장·동아일보 편집부 차장)

지금도 편집장으로 사는 나에게는 그 당시의 훈련이 철칙처럼 되어서 아래 기사를 다룰 때에는 매우 호되게 치는 줄만 알고 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독선이다'라는 항의를 받을 때면 '나도 그렇게 배웠다. 원망할려면 동대신문의 그 귀신들한테나 해라'고 일축해 버린다.

-김형균 (73년 편집부장·불지사 대표)

79년 가을, 10·26부터 시작된 '당분간 휴교'로 우리는 충분히 멍청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국가적 위기'라는 시국의 중압감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품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촌자'를 못쓰게 되어 더 초조해 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다시 '당분간 휴교'—그 뒤로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정희성 (81년 취재부장·'행복이 가득한 집' 편집부 차장)

## 총·학·출·범·식·선·포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승리를 노래하라

17일 오후 7시  
만해광장에서  
우리의 92년을 제시합니다

1부 출범식  
2부 총선·동부승리를 위한 일반 동아리 진군대회  
3부 실천행사

제24대 총학생회



# 모든분야 낙제점수 받은 6공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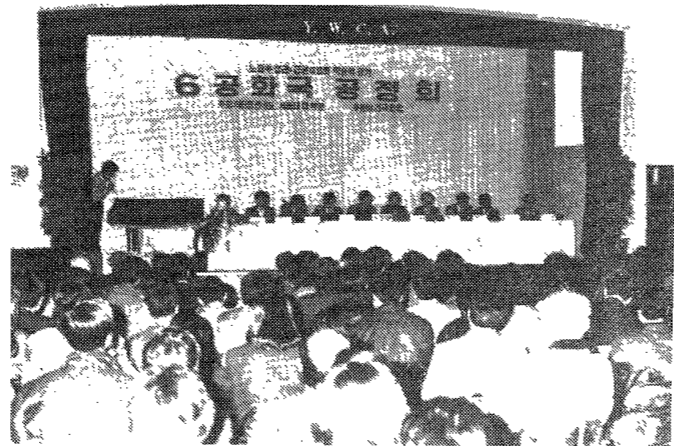
## 학단협 주최 '6공화국 공청회'

'원정권 집권4년의 학술적 평가를 위한 6공화국 공청회'가 3백여 명의 대학원생·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단협 주최, 전국연합 후원으로 지난6일 명동 YWCA강당에서 열렸다.

안병욱(상선여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토론회는 정치·경제 등 9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참석한 학자들은 '6공은 완전 실패작'이라는 공통된 학술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실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과 이의 확인작업을 통해 민민원의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92년 선거에서 유권자가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분야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6일 학단협 주최로 열린 '6공화국공청회'에서 참석한 학자들은 '6공은 완전한 실패작'이란데 입을 모았다.

▲정치-6공화국 정치와 3당 야합(최정호 고대교수·정치학) 6공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우리 정치구조를 선거를 통해 변형시켜야 할 과제를 부여했다. 5공이 1인·친북독재였다면 6공은 일부집단(TK세력)으로 확실히 봉기했다. 또 3당합당은 지역감정을 더욱 심화시켜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구조를 '호남 대 비호남'의 지역대결로 몰고 갔으며 여야간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결국 92년 3월 현재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어 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경제-6공화국의 경제정책과 이데올로기(정태인·한국사회연구소) 87년 대선에서 노태우후보는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의 실시, 내집 마련이라는 3대 경제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토지공개념은 형해화되고 금융실명제는 실종됐으며 국민들은 있던 집에서조차 쫓겨났다. 또 88년 한국은 세 마리 토끼(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를 잡았다고 떠들썩했지만 집권말기인 현재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10%대에 달하고 1백억 달러 국제수지흑자도 1백억 적자가 버렸다. 그리고 최후부 부총리가 버티면서 경제개혁은 완전히 사라고 재벌간의 힘겨루기만을 전격하면서 2년 2-3월만 된 '경제개혁 노동자책임'에 힘의, 노동자를 불모로 경제파탄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노동·농촌-노동조건과 농촌현실(장성환 경성대교수·경제

학) 현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8시간으로 태국의 45.0시간보다 3.8시간이나 길다. 또 성장결과에 대한 배분의 문제에서 87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실질임금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잇따른

## 3당 합당후 정치실종...경제 파탄 '가봉'보다 못한 사회복지 수준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물가상승에 원인이 크다.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UR형상과정에서 잘 나타나는데 '다른 것은 양보해도 농산물시장은 개방 못한다'는 농산물 중 15개 품목은 지키겠다-쌀만이 리도 확실히 지키기위해 그 품목은 양보할 수밖에 없다-쌀시장개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는 식의 방관자적 방침이 그것이다. 6공(88~90년)들어 농업성장률은 연평균 2.4%감소했으며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책중 농촌공업화정책(중공단지육성 등)은 수도권·부산 주변에 집중됨으로써 지역불균형현상을 심화시키는 한편 농촌인구의 노령화·부족으로 단기간 공장을 영세공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6공의 수입개발정책으로 한국농업은 해체적 상황을 맞고 있다.

▲사회복지-사회복지예산(조홍식 서울대교수·사회복지학) 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천명해왔던

(표) 국민인당 사회복지비 수혜액 및 비율

| 국 가     | 수혜액(\$) | GDP대비(%) |
|---------|---------|----------|
| 브 라 질   | 536.98  | 59.9     |
| 그 리 스   | 586.08  | 18.3     |
| 파 나 마   | 215.8   | 10.3     |
| 우 르 과 이 | 180.05  | 8.4      |
| 아르헨티나   | 73.08   | 8.1      |
| 가 봉     | 85.54   | 3.0      |
| 한 국     | 68      | 1.6      |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복지국가의 실현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92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6공은 "영세인의 생계보호수준을 현실성있게 상향조정한다"고 떠들면서 그 비율의 상승(7%증액)을 강조했다나 실제로 상향보호수준이 월 5만2천원에서 5천원 증가한 것뿐이며, "대폭개선"됐다는 부식비의 경우도 가구주

▲여성-남녀고용평등법, 있으나 마나(정현백 성대교수·역사학)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은 87년 12월 대선과 88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의 표를 겨냥한 선심용 입법이다. 이는 고평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보다 벌칙규정이 약한 면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법적 개상 현실성이 전혀 없다. 또 여성들의 고용차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장내 유이시설 확충'등의 정책에 대한 투자비용도 없으며 더욱이 91년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공무원 인원42조(필요에 따라 성별비율을 할수있다)를 내세워 서울시·경남등 10개 시도가 남녀비율을 8:2로 책정했던 것을 보면 정부가 오히려 남녀차별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6공의 교원통제정책(이철국·전교조, 현연희·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 6공은 교육노동에는 89년 8월까지 1천5백명의 교사를 강제해직시킨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5공때보다 10배이상이다. 88년부터 92년 사이 교육노동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립학교법, 교원임용규제, 교원직위상향 등을 위한 특별법, 교장 임기제 등이 실시됐지만 교육환경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또 최근 교육정책은 대학·고교·계단을 대타인으로 내세워 간접통제를 하고 있으며 그 보상으로 국고보조를 하는 등 사학의 재정민약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집권연장의 도구로 사용돼 왔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종합 토론

한편 각분야 발표후 김철수(민중당), 박인규(기자협회 편집국장), 박영숙(민중당 부총재)씨등 3인이 8명씩 종합토론을 벌였는데, 박인규씨는 일간지의 지면경쟁을 예로 들어 언론매체가 재벌·거대종교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대중매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병민 기자)

## ◇충족되는 동국관 공간 사용용도

### 교수연구실-학생자치공간 확보

동국관(L동)충족공간 1백64평의 활용방안을 놓고 학교당국과 동국관지역 4개 단과대 학생회의 협상은 지난 3일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1일부터 3차례 협상과정을 통해 학생회측은 충족공간 대부분을 교수연구실로 사용하려는 학교당국의 계획에 반발, 중앙도서관이 계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동국관 지역 3천5백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과 학생회자치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학교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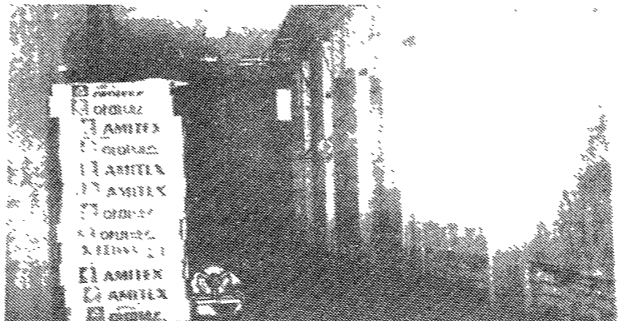
그러나 학교당국은 "기계공학과 신설을 비롯, 계속되는 신규교수 채용으로 인한 교수연구실 부족 현상이 누적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회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같이 학교당국과 학생회측의 이해와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학생회측은 지난달 27일 야간강좌총학생회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충족공간에 대한 학교당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신 △동국관 M503·M502(복도포함)를 야간강좌 전용 열람실(1백50석)과 합쳐 6백석의 열람실을 확보해 줄것 △동국관 M503(복도포함)까지인 열람실 화할 경우 동국관(M동) 1층 교수연구실 6개를 학생회자치공간으로 해 줄것 등 충족공간에 상응하는 2가지 요구안을 학교당국에 제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학교당국도 학생회측의 요구안을 긍정적으로 지난 3일 관리자

장실에서 열린 5차협상에서 △동국관 M503(복도포함 1백80평)까지 5백석의 열람실을 확보해 줄것 △동국관(M동)1층 교수연구실, 안보연구소 등 8개공간과 동국관(M동)5층 이송영(무역학)교수연구실을 학생회자치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대신 △남파대선용열람실(L402)과 경상대세미나실(M210)을 학교당국에 반환할 것을 학생회측과 합의했다.

이로써 충족공사가 완료되는 내달 15일경 동국관(M동)1층 8개공간은 법과대 1개, 사과대 2개(경영과학생회실포함), 경상대 1개, 예술대 2개(연영과·미술학과 학생회실), 야간강좌 2개 등으로 배분되어 스모인·세미나 등 학생회자치



공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학교당국과 학생회측이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학교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부처의 한 관계자는 "대형 강의실이 가깝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M503강의실이 하나 빠짐으로 해서 분반할 경우 다른 강의실을 찾는 데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계공학과 신설과 함께 다른 단과대도 계속 공간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남산 계보순환기' (6층이상 건물 충족불러)로 인해 건물인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간부족 현상은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리자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공계 캠퍼스를 새로 설립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기철 기자)

## ◇교수 정년보장제의 타당성 검토

주지하다시피 요즘을 국공립 대학당국과 교수들은 교육부 당국에 제시한 새로운 대학교원임용제에 근거하여 교수정년보장제를 마련하고 그 확대계획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돌연 교육부 당국은 이에 신경을 끈두세워 제동을 걸고 있다. 그리하여 교수정년보장제의 도입 및 그 확대여부와 관련하여 교육부 당국과 국공립 대학당국간의 파워 게임(power game)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직은 가시적이진 않지만 이에 편승하여 사립대학에서도 그와 유사한 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동 제도를 둘러싼 그러한 게임이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의 여부와 필요할 혹은 불필요한 소모전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몇가지 근거를 모색·제시해 보겠다.

먼저 교수정년보장제의 설치 및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교육부 당국의 변명스런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를 보면 첫째, 일단 교

원위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교수정년보장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 비추어 불매 의당 인정되고 확대되어야 하겠다. 첫째, 적어도 교수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수의 학문적 자유 내지는 정치적 자유는 위축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수가 가르치고 쓰고 싶은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의 사약형이라든가 갈릴레오(Galileo)의 교수형은 그 혹독한 실례라 하겠다. 따라서 교수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혁신과 모험정행은 위축될 것이다.

둘째, 교수의 사기 및 보수와 연관시켜 볼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수의 자아상을 격하시킬 뿐만 아니라 보수협정이 있어서 행정가에게 국공립에 이득으로 작용하는 나머지 교수들은 저임금으로 고용되고 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또한 교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나쁜대로의 합리적 근거를 보면 첫째, 일단 교

## 학문자유 위한 필수장치

### 정치적 악용...대학자율성 침해 우려

수가 되고 나면 논문 한편 쓰지 않고도 집안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자동적으로 승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 보면 교수들의 책임감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능력수준이 저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전문성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앞의 두가지 논거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으로 그것은 교수정년보장제가 대학을 무능교수의 은신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교수간의 노화현상을 부채질하는 나머지 능력있는 젊은 교수진의 영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악용...대학자율성 침해 우려

대학자율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정책을 조장할 것이다. 셋째, 교수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 또는 대학당국의 관료적 경향이 악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정년보장을 미끼로 삼아 바른 소리를 내거나 혁신적인 교수진을 축출하는 한편, 말없는 노예공순이라는 비장적의 교수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대학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교수의 정년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 또는 대학당국은 재정적 이유로 원로교수를 배제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 젊은 교수진과의 신진대사를 가속화 시킬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교수정년보장제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논의의 여지도 없다. 여기서 필자는 1915년에 창설된 미국대학교수연합회(AAUP)가 일찍이 '교수의 임기는 재판적이어서는 안 되고 학문으로부터의 퇴임은 동료교수들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상기시켜 두는 바이다. 또한 대학이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ational anarchy)인 양 이완결함체(loosely Coupled System)로 보이나 그런 가운데서 대학의 수월성을 지켜나가는 전문가 기질의 신비를 교육부 당국은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 당국은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후속조치인 대학당국의 처사가 적법함을 인정하고 자가당착적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장안 내지 실시하려면 보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진환

(교육학과교수·교육행정)

화승

## 발의 자유, 젊음의 캐주얼화 허시파피

110년을 지켜온 발의 자유-허시파피! 허시파피도 도시에 자유의 바람이 분다. 독특한 비스스 기능과 컴퍼트커브로, 발의 충격을 흡수하고 뒤통의 걸음에 탄력을 더해주는 허시파피! 발의 자유, 젊음의 캐주얼화-허시파피

허시파피의 독특한 Bounce기능 보행시 충격을 흡수하여 발의 힐(HEEL)과 볼(BALL)의 압력을 줄여 걸음을 편하게 합니다.

Bounce

또한 바닥으로부터 전해지는 에너지를 모아 앞으로 밀어주므로 걸음에 탄력을 더해줍니다. 허시파피의 새로운 Comfort Curve 발의 곡선에 따라 신발 밑바닥에 곡선홈을 만들어, 발가락 관절에 전해지는 압력을 덜어주고 몸의 무게를 부드럽게 앞으로 이동분산시켜주므로 걸음이 더 편안합니다. 미국 특허상표권 특허 획득 (1987.12. NO131219)

# 공포

## '개코아저씨'

"아저씨, 저..... 말씀 좀 듣겠는데요. A203 강의실이 어디죠?"

난 날아, 두 눈을 감고도 냄새로 알 수 있구나. 너희들에게선 민트향기가 나가는, 막 양지질한 허얀 치아와 잇몸 붉은 내입술 언저리에 감도는 향기로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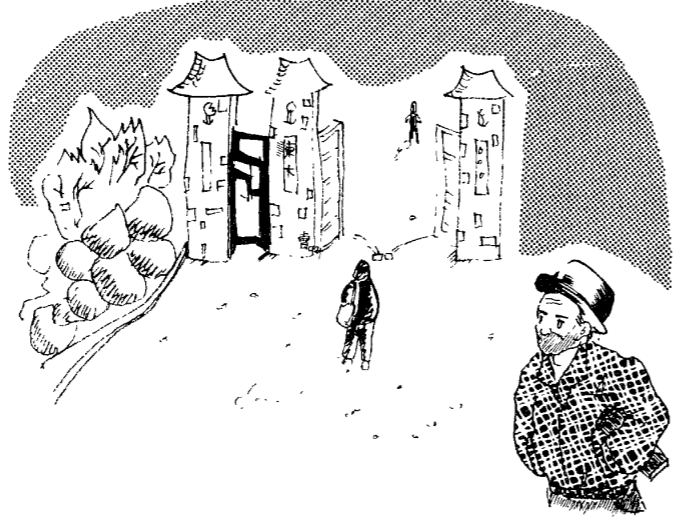
"저기 보이는 분수대와 불상을 중심으로해서 동서남북으로 중앙도서관, 본관, 명진관, 다량관이 위치하고, 정남향에 풍상애 우뚝 선 저 건물이 명진관이라하는데 A203 강의실은 그 이층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다 뭐야. 이래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몸도 남산위에 저 소나무에 맺힌 아침 이슬방울처럼 찬싹한 새내기일 때가 있었잖아. 허기가 장강(長江) 앞 물결도 뒷물결에 떠밀려 흘러왔으나, 세월의 흐름 속에 몰간 아저씨 취급도 어쩌면 당연하지만 말이지. 이 땅의 청년들의 또 하나의 대학인 '군대'에 다녀온 2년여를 제외하고 매년 이맘때 교정에서 대학 초년생들과 마주칠때면 꼭 7년전 내 모습이 떠올라 혼자 미소 짓곤 하거든.

"아저씨, 말씀 좀 어썩겠는

# "후레쉬맨, 아예 중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데요. 본관 경리과가 어딴지?"

그 해 들어 교정의 분수는 처음으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은 분수가 겨울 지나며 얼마나 예타게 물줄리는 날들을 기다렸던가. 언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긴 터널 속에서 멀리 동전만큼 돌린 한조각 빛깔을 바라보며 기계를 내내 걸어왔던가. 주머니 속엔 헝거웠던 겨울나기의 증표인냥 합격통지서와 고강서 풍 팔고 개 팔아 풍채 준 풍채들을 꼭 움켜쥔 채 말이지. 입학금 접수 마감까지는 분초를 다투는 늦은 시간이었

다. 피어난 3월 하늘에 불 부비는 분수 물줄기를 감상할 여유가 있었어. 언덕길을 오르는 학생들은 제마다 바쁜 걸음들이었고 담담 교수님이실지도 모를 연세 지긋한 노신사분께는 지레 말도 건네지 못하고, 겨우 길을 물어개 개가죽점비 아저씨였어. 우리는 정성어느 할을 면해서 웃음을 스쳤던가? 그 아저씨는 알뜰 말투한 입가 웃음을 지으며 대학본부내 경리과를 소상히 알려주던군. 웬지 눈가에 서늘한 기운이 입학금을 움켜쥔 손에 따끔하게 했지만, 그 분의 첫인상

더 그의 친절한 길안내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에수에 쫓은 듯 학생회관을 드나드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길, 계산관 근처를 떠도는 그의 발걸음, 어쩌면 상아탑을 떠나지 마다 하는 늙은 코끼리가 아니란 듯 바람에 열애하는 여학생을 쫓아다니는 로렌스 그레이 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번은 중강강시간을 이용해서 대운동장 주변 돌의자에 앉았는 아저씨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 운동장에서 무슨 집회인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는 특유의 예수인 시선으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단거야. 나는 그의 우우어린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써 멀찍이 앉아 결눈으로 그를 지켜보았어. 아저씨는 가능하고 흰 손가락에 얹은 연필을 쥐고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 용출하는 땀을 적어 사위어가는 시선(詩心)을 가다듬는 작가선생님인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부풀리며 엉덩이로 그에게 다가갔어. 드디어 두 사람의 손길이 들릴 정도로 근접했을때, 그는 수첩을 덮고 한발짝 물러서는 것이었어. 눈을 흘리지 않고도 상대방의 접근을 알아차리는 그분의 범상치 않은 인물됨에 새삼 놀라며 어쩔사리 말문을 빼꼼이 열었어.

"저... 아저씨, 말씀 좀 어썩겠는데요. 혹시 아저씨...?"

아저씨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은채 내 말문을 되 알아버리는 것이었어.

"후레쉬맨, 아예 중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서로가 곤란해져..."

중문? 알수없는 선문답만 남긴채, 그는 학생들 틈바구니로 총총이 사라졌어. 그후 그에 대한 기억은 점점 내 뇌리에서 지워져갔다. 대학문화는 초년생인 내게 모든게 경이로 다가왔고, 동문회도 동아리로 미명으로 쓰다나기에 바빠서... 그러면서도 동문의 언덕은 여름으로 향하며 차츰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고 있었어. 한학기

아저씨의 팔뚝에 눌러 붙었어. "아저씨, 잘 알아보시겠어요?"

"....."

나는 아저씨에게 이 끈경에서 빠져나갈 비상구를 묻고 싶었어. 개가죽점비 아저씨는 예이 우우어린 눈동자로 날 잠시 바라보았어. 그것도 잠시, 내 떨리는 발을 뜯어내고 등을 돌리더라고. 웬지 교정에서 그와 달리 그의 회고 길에 은근한 활력이 실려있다는 게 의문이었지만, 나는 구멍의 머지막

아저씨는 형사였단거야. 그가 말로만 들던 그라고 그런 인물인줄을 꿈틀 알았잖아. 내 몸은 나무의자에 벗어난 옷가지가 되어 떨쳐 무너지고 말았지. 그리고 그때서야 '중문앞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아저씨의 충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더라. 개가죽점비 아저씨, 아니 교정 구석 구석을 누비며 냄새를 맡아가는 그 아저씨를 '개코 아저씨'라 이름붙였고 그후로도 이런저런 연유로 그와 몇 차례 더 마주쳤었다.

물론 제대이후엔 개코아저씨를 보지 못했다. 아직도 살얼음진 분수대를 지날때면 그와 달리 그의 회고 길에 은근한 활력이 실려있다는 게 의문이었지만, 나는 구멍의 머지막

언필칭 민주화된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개코아저씨 같은 분은 이제는 아저씨라 불리워지며 학교를 떠나는 나만큼 퇴물이 된 구시대 유물이겠지.

가 거의 끝나갈 무렵, 허룽강 아저인 나는 호랑이 굴로 불들러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 난생 처음 취조실에 끌려왔던 거 육박지름을 당할때, 눈앞엔 운동 캠퍼스만 봤어. 낯선 사내를 뚫어보아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 호랑이 아가리 속에서 천만다행히도 언뜻이 있는 분을 만난거야. 어제가 죽점비 아저씨... 벼랑에 매달려 애초로이 흔들리는 내게 그 아저씨는 한가닥 회색의 풍아 붙어있어. 더구나 그의 위생은 경찰서 안에서도 땀만큼 통하는 집세였거든. 난 시슴없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으로 동아줄을 움켜쥐었어. 아저씨... 교수님이신지, 직원 이신지 몰라도, 아니면 선배님 이신지, 어쨌든 아저씨가 절 좀 도와주세요. 절 기억하시죠. 비명같은 말들이 말문앞에서 얼얼거릴때쯤 좀처럼 말문을 나치지 못하고 궁궁거리고 있을 때, 날 탁달하던 담담 경창의 한마디에 이 몸은 호되게 한 대 얻어 맞고야 말았어.

"이이 강형사, 이 초차 코플리가 자네와 면적이 있나봐..."

강형사 / 의문의 개가죽점비

이제는 아저씨라 불리워지며 학교를 떠나는 나만큼 퇴물이 된 구시대 유물이겠지. 미야호로 교정은 길을 묻는 신입생들의 환한 웃음소리와 그네들의 민트향기로 가득할 것이다. 근래 외운 옛 시구대목 '長江前浪而後浪推(장강 큰물결도 뒷물결에 밀려 후추어질라)'를 읊조리며 가파른 목벽의 언덕길을 고개를 끄덕이며 내려간다.

진 선 묵  
(국어교육과 92졸)

## 달이나 신에게

## 目不忍見

이 상 현 (사회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조때 명계상이었던 梁濟(양계)가 말년에 병석에 있을때 그의 후배인 丁龍(정룡)가 약방문을 해보낸 편지의 답사로 다음과 같은 사연을 보냈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자기의 진위를 위하여 털끝만한 이익이라도 있으면 아무런 이유없이 생명을 죽이고도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용한 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풍조와 사람들이 많으니 이보다 더 한 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무리들은 천만을 알고 蠶를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혜와 힘이 우세한 사람이 생겨서 도리어 자기를 해치고 죽여서 재물로 삼아 진취의 매개로 삼는 것을 오늘의 계가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없나? 누가 어떻게 단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되어 그 화는 무공해서 그칠 줄 모를 것입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과연 2백여년전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내적 인 것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그저 이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주위에도 신의와 정의의 빛깔과 힘의 논리와 이해타산만을 추구하며 약육강식의 옛질서 속에서의 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의 이러한 윤리의 인정한 착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와 정의를 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탄의 자극력을 잃은 지도 오래일 것이다.

결론으로 정의권에 선듯 명분을 위장하여 주위 사람의 시선을 끌며 불의와 흥정을 하며 야누스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었는가? 당신의 인생이 몇 수십년 더 길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인가?

아무튼 병들은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로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원력 이외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중국의 사상이 靑子(청자)는 한 도둑놈이 대낮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놈이 만인이 보는 곳에서 돈을 가지고 달아나면 어떻게 할 셈이냐"라고 했더니 그 도둑놈은 "人見不但金見"이라고 대답했다. 즉 '내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였다는 말이다. 이런 자를 불교에서는 顯側(현측)이라고 한다. 즉 '범부가 무명에 어두어서 진리를 비진리로, 비진리를 진리로 보이는 눈'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目不忍見(눈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어이가 없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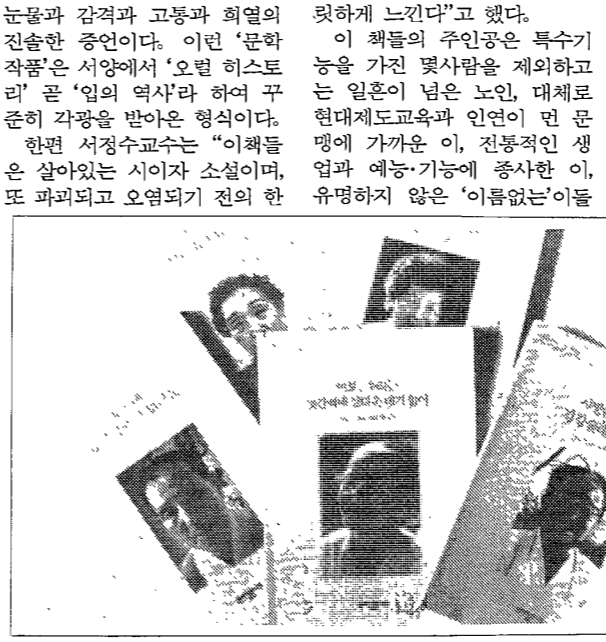
## 서평

# 무식한 말솜씨에 담긴 진솔한 문화

오늘날 해가죽에게는 어른이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기 예사고, 있다 치더라도 그 권위를 텔레비전에게 빼앗겼기 실상이다. 게다가 부모가 있다면 한들 학교성적, 임시준비를 다 그치기야 하지만 직장인, 경제활동, 여가활동 따위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미래의 행복에 보탬이 될 사람다운 가정교육을 시킬 겨를이 없기 일쑤다.

'뿌리깊은나무'는 이차례의 5천년 역사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 증현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식한 말솜씨'를 현대 도시 가정에 되찾아 주어, 이 산업사회의 유익하다는 교육이 끊기다시피 해버린 한국인의 문화적인 것들을 이시대에 대보기도 한 끝에 지난 10년동안에 걸쳐 꾸준히, 꺼져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의 불씨를 휘젓게나마 후후 불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작인이었다.

민중자서전 스무편은 근본적으로 현대 텔레비전의 도시 언어에 덜 묻은 '무식한' 노인들이 입으로 구술한 자서전들이다. 매정한 도시 사람들의 번지르르한 허울좋은 말이 아니라, 텔레비전의 미술에 허풍이 덜 마비된 이들이 전통사회의 마지막 제법자로서 쓴아 놓은



민중자서전 시리즈 소개

『민중자서전』 1권  
『민중자서전』 2권  
『민중자서전』 3권  
『민중자서전』 4권  
『민중자서전』 5권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권마다 국내외 권위있는 언어학자들이 주인공의 말과 말투를 분석해놓은 논문들과 국내외의 문화인류학자들이 주인공의 생업과 세상살이를 관찰하고 쓴 글들이 들어있다.

둘째, 젊은 부모들의 손에서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빌려해 구연해 들려줄 수 있는 '신선한' 이야기이다.

셋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식적인 교과서를 통해 골치아프게 외워 익히는 죽은 공부 말고, 사회·민속·언어·현대사·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소실해보다 더한 재미를 느끼면서 술술 해지수 있는 문화교과서가 된다.

넷째, 무엇보다도 작가, 시인이 되고자하는 이들, 특히 '입의 말'의 능란함이 성공의 관건이 되는 방송작가·지망생·엔지니어·직업인·지침사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의 여러 분야를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풍부한 학술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집이다.

따라서 '민중자서전'은 이제와 오늘을 통달하여 더 '잘사'는 내일을 예비하고자 하는 이들이 두고두고 가까이 해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것이다.

공정사  
(뿌리깊은 나무·새이  
깊은 물 사업단)


##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페이지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페이지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그래서 에띠앙은 빨강, 파랑

<에띠앙 사랑이야기 10>

|  |  |
|--|--|
| 하나, 좋아하는 마음이 아이스 크림 같다면  | 여섯, 좋아하는 마음이 빨강색이라면                                  |
| 사랑하는 마음은 은은한 향수 같을까야   | 사랑하는 마음은 파랑색이야                                       |
| 둘, 좋아하는 마음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 같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밤새 쌓이는 하얀눈이야                  | 일곱, 좋아하는 것은 손수건 적시며 이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뒤돌아 눈물짓는거래     |
| 셋,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은 사랑을 선물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붉은장미 한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밤이야 | 여덟, 좋아하는 사람 편치면 사랑한 말 뿐이고, 사랑하는 사람 편치면 그저 한숨뿐이야      |
| 네, 좋아하는 마음은 정답게 이야기 나누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말도 못하는거야                      | 아홉, 좋아하는 마음은 관속에 누우면 끝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지옥까지도 끌고 가는거야    |
| 다섯, 좋아하는 마음이 크림쉬인 커피라면 사랑하는 마음은 블랙 커피야                             | 열, 좋아하는 마음의 시작은 귀로부터 시작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시작되는거야 |



에띠앙 ETIENNE

20살 감각의 색다른 아름다움에의 초대,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스물, 스물하나. 이 시절 우리의 가슴은 하트가 된다. 솔직하기에, 신선하기에 우리의 가슴은 하나가 된다"

여자나 이 20살. 자기만의 맛을 강조하고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세대라 할 수 있겠지요. "속옷을 잘 입어야 진짜 멋있어"란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름답고 예쁜 나이 20살. 어떤 일에서든 열의를 아끼지 않으며, 독특한 개성을 내보이고픈 바로 그 20살 여성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내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린제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부드럽고 심플(Simple)함을 테마로 하는 촉감의 변화를 시도한 에띠앙입니다. 레이스 사용을 자제하고 선(線)을 중시한 절제미(節制美)와 걸음과 잘 어울리는 대담한 칼라의 선택, 그리고 활동적인 젊음을 위한 편안함까지 고려해서 만든 신세대 감각의 린제리가 에띠앙이지요.

에띠앙 / 그레요. 그 예쁜 나이가 내자신일 수도 있다는 색다른 정성으로 예쁘고 편하게 만든 것이 에띠앙이예요. 좋아하는 마음 빨강과 사랑하는 마음 파랑이 어우러져 놓도질은 패션 칼라에 잘 배색된 것이 에띠앙입니다.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잘 결합된 20살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린제리 - 에띠앙. 그래서 에띠앙을 빨강, 파랑이라 부르는가 봅니다.

강수진 25세 에띠앙 디자이너  
90년 인화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 등록금 협상 합의안없이 제자리 걸음

## 총학 등록연기 철회, 새로운 투쟁 방안 모색 학교 재원확보 방안 없이 학생기준 원칙고수

학교당국의 등록금 19%인상 이후 학생측은 6차례 걸친 협상을 전개했지만 실질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채 양측의 설득과 요구만이 팽팽히 맞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학생측은 지난 9일 기획조정실에서 6차협상을 벌이면서 지난해 예산자료에 근거한 타당한 인상율과 사립학교법 '학교법인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명시된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의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지난 87년부터 시행된 개별연차별 차등화 계획을 없애달라는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학교당국은 "예산자료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등록금정책회의의석상에서는 예산제정의 열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진전의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별차등화는 불가피한 일이며 재단전입금의 확보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해



◇지난 5일 '등록금 전전대회'결의후 재단사무실 앞에서 실천전을 벌이고 있다.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등록금부족의 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공과대와 예술대 학생회는 학년기준을 적용 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이점에 대해 학교당국은 "학생기준을 적용해서 생기는 공과대의 3억과 예술대의 5천만원은 소속단체에 전부 투자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지만 학생측으로부터 타당성없는 논리로 지적받았다.

올해 학교당국이 투자해야 될 행정예산으로는 △신설된 산업기술대학원과 기계공학과와 교육환경 마련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 평가에 대비한 실험실습기구의 도입 및 교체, 신규교수 총원 △등록금문화센터 건립추진 등 예산수요의 폭이 가중됨으로 보여 근본적인 재원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한편 학생회측은 지난9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 벌여온 등록금납입연기투쟁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이를 철회하는 대신 오는 12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릴 '등록금 및 총선 승리를 위한 일민동맹 결의대회'를 통해 이후 세부 투쟁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 할 방침이다.

가 참석하 가운데 내일(12일) 오후5시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강후 첫모임을 갖는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등록금인상에 반발, 학교측에 제기해온 일민실 확충, 학술활동 지원금 확충등 제반 복지사안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학생회장 김근은 "학생회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협상에 있어 각과 단위 복지 요구안을 수렴해 대학원당국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 계획하면서 현재 개강호 1면기사가 문제가 되어 신문발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건대신문도 광고전, 학점제, 편집권을 놓고 싸우고 있으며 지난해 사설된 싸움으로 발행이 중지됐던 외대학보는 다시 광고전으로 마찰을 빚고있다. 이외에도 덕성여대, 서강대, 포항공대 대부분의 신문사가 원활한 신문제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대학언론 탄압의 가시화는 교육부가 오는 24일 총선이나 이후 대선을 바라보며

대부분의 신문에 선거관련기가 실리지 않을수 없음을 알고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삼아 제작중지를 종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학사심의관 주재로 몇몇대학 신문주간을 초청하여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사를 실어 학생기자들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대, 사업계획 발표 제8대 총여재선거 무산**

제24대 총대의원회는 92년 월별 사업계획과 집행부및 중앙위원을 구성하고 발표했다. 월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월=1학기 예산배분회 구성, 제 학생자치기구 사업계획서 검토 △3월=총여재선거 △4월 1학기 대의원총회 1/4 분기 정기감사 △5월=대동제 행사마련 △6월=전체 대의원 수련회 △7월=1학기 통산감사 등이다.

또한 새로 구성된 집행부및 중앙위원으로 보면 △총의장=김성원(경의4) △총부부장=이선주(국문4) △사무국장=김영희(경의3) △선전부장=양민석(목문2) △물리대=최종현(선학4) △문과대=조대영(국문4) △이과대=박주상(통계4) △법과대=안인식(법학4) △사과대=박종원(경의4) △농과대=박준제(농생3) △사범대=이종진(국교4) △예술대=김수연(연영4) △야간과=김동우(무역3) 등이며 경상대와 공과대는 미결정 상태다.

한편 이번 3월 총대의원회 정경사업중의 하나인 제8대 총여재선거 개정은 지난6월부터 9일까지의 등록기간중 일부 보자가 없이 무산됐다.

## 직원노조 단체협약 구체화 될 듯 12일, 총회 열고 임금인상을 결정

직원노조(위원장=이진배·경상대 교학계장)는 199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요구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전체 직원노조총회를 열고 이후 진행될 학교당국과의 협상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단체협약안의 주요내용

을 살펴보면 △인사원칙과 기준공제 및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여직원 인사제도 개선 △명예퇴직제 시행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임금수준확보 △근로이익 고과 및 행정발전 위한 직원장안제도 실시 등이다.

또한 임금협정 요구안은 임

금인상효과와 적절한 균분임금 체계의 점진적 개선등을 기본 원칙으로 △18%인원의 임금인상 적용 △사무직, 기능직의 호봉을 개선 △직무수당, 보직수당 등결하여 인상효과를 최대한 △급여체계를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의 직능별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대학원학생회 12일 현안문제 논의

제8대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학 석사)는 등록금 협상및 학생회 재연행사 준비등을 안건으로 과대표, 조교

## 기계공학과 자치공간 마련 시급 학교·학생, 복지문제 해결합의점 못찾아

올해 신설된 기계공학과와 학생회실 확보의 강요실부족등으로 인한 공간문제 해결을 공대학생회가 학교당국측에 요구 하고 나섰다.

그간 공대 원호관의 강의실 부족과 실험실습기구에 설비부족 문제들이 학교측에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기계공학과(정원60명) 신설로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일단 학생회측은 학생회 문화부실을 절반으로 개조해 기계공학과 학회실을 만드는 문제를 학교측과 협의할 상태이

## 민중후보 지원금 마련 공언

민중정당 독자정당지와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서울지역 학생선거운동연합(의장=윤재호·서울대 국제경제4)추위의 민중후보 지원금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1992. 3월...'을 위한 준비를 위해 지난 7, 8일 양일간 서충원소속 학생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교 중앙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 대해 주최측은 "부산의 여성노동자 권미경양의 죽음을 통해 특권자본의 폭력적노예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대의를 만수무거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사로 나왔던 백기완씨는 "한정권이 총선및 대선 등을 통해 민중들을 정치로부터 내몰려 하고 있지만, 민중정당이 단결하여 선거가 국민들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중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 직원 49명 승진및 인사발령 신규 13명도 부서 배치

학교당국은 지난 2일 계장급 이하 총49명(서울캠퍼스 34명, 경주캠퍼스 1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문과대 교학계장=이영희 △공과대 교학계장=박원규 △과외관 관리계장=배정진 등 3명이 승진됐고 이의 인사이동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행정대학원 교학계장=이강현 △경명대학원 교학계장=오중호 △경보안대학원 교학계장=손재영 △교무계장=황주환 △취임계장=신관호 △총무계장=한문우 △구대계장=박광호 △법과대 교학계장=김형배 △사범대 교학계장=이우룡 △체육실 체육계장=박중삼 △대신문사 편집국장=안재봉 △교과과=박상관 △학적과=김영수 △학생과=최재희 △총무과=김영진 △한문과=이영희 △대학원 교학부=황의돈 △대학원 교학부=박종원 △비안도서관 열람과=김두재 △비서실=김영준 △교육대학원 교

## 학과소식

- 국민윤리학과**  
92년 제1호 '윤리학보'에 게재할 과학생들의 시, 수필, 만화 등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
- 경제학과 정기총회**  
경제학과학생회는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11일) 오후5시 동관(2301)에서 갖는다.
- 미술학과**  
예술단원 전시발매 미술학과 발대식이 지난 9일 열렸다. 과운영위원 및 집행부소속, 노래대 공연 및 공중제비 등을 통한 92년 원년 도약을 결의.
- 연극영화학과**  
92학년도 연영과 신입생연영 및 2학년 실습공연 '안개'가 오늘(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후4시, 6시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막을 올린다.
- <신인생환영회>**  
야간과장 경영학과 내일(12일) 오후5시 동관 식당.

## 서당개 3년이면 공천

○...서당개 3년이면 공천을 올랐던 민자당 과잉 중성 7년이면 공천을 받는다고. 모든 보직을 사퇴하고 강 의와 연구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한 본교 모교수가 지난 88년 당시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강의시간 초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민자당직책을 홍보하는 데는 불철주야 뛰어 다니더니 작 고골에 민자 당 전국공천을 받았다

## ○...등록금협상이 학교당국과 학생측에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은밀히 거머쥐어 남

제삿상에 받나라 대추바라해 학생측대표를 놀라게 했다

지난9일 6차협상실상에서 학교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금협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직의 인사가 눈치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협상후 여러 불편한 일이 우려된다. 학교측의 어려움은 이해해달라"고 트로트했다. 것. 이에 본 회전부대 "협상 자체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임을 안다면 강자에 약하게 굴면서 약자에게는 강하게

## 행동하는 것은 이용배만이 아니겠소"

가기 받 있나... ○...다들 학과 신입생들은 한창 선배들과 어울리며 학회실을 오갈 요즘 변변한 자 리공간 하나 없이 떠도는 60명의 마야(?)들이 원호관에서 배고고 있어 애처롭기만.

## 신속한 처리가 없는상태에서 학수고대만하고 있는 공과대

우상 "기계공학과"의 서글픈 심정은 누가 알아주리요... ○...오락프로그램연구 ○...신속하고 정확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각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가 언제부터 직원들에게 오락기계가 됐는지.

## 대학원 학생회 12일 현안문제 논의

제8대 대학원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학 석사)는 등록금 협상및 학생회 재연행사 준비등을 안건으로 과대표, 조교

## 민중후보 지원금 마련 공언

민중정당 독자정당지와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서울지역 학생선거운동연합(의장=윤재호·서울대 국제경제4)추위의 민중후보 지원금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1992. 3월...'을 위한 준비를 위해 지난 7, 8일 양일간 서충원소속 학생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교 중앙관에서 열렸다.

## 직원 49명 승진및 인사발령 신규 13명도 부서 배치

학교당국은 지난 2일 계장급 이하 총49명(서울캠퍼스 34명, 경주캠퍼스 1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학과소식

- 국민윤리학과**  
92년 제1호 '윤리학보'에 게재할 과학생들의 시, 수필, 만화 등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
- 경제학과 정기총회**  
경제학과학생회는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11일) 오후5시 동관(2301)에서 갖는다.
- 미술학과**  
예술단원 전시발매 미술학과 발대식이 지난 9일 열렸다. 과운영위원 및 집행부소속, 노래대 공연 및 공중제비 등을 통한 92년 원년 도약을 결의.
- 연극영화학과**  
92학년도 연영과 신입생연영 및 2학년 실습공연 '안개'가 오늘(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후4시, 6시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막을 올린다.
- <신인생환영회>**  
야간과장 경영학과 내일(12일) 오후5시 동관 식당.

## 상 차리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먼저...정말 곤란해

하지만 이러한 일을 보고도 학생회가 대응책마련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회전부대 "민자당과 학생회측에 비치는 그 교수의 얼굴이 흡사 '두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닌가 싶네요" 불철주야 뛰어 다니는 민자당 전국공천을 받았다

## 모직의 인사가 눈치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협상후 여러 불편한 일이 우려된다.

학교측의 어려움은 이해해달라"고 트로트했다. 것. 이에 본 회전부대 "협상 자체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임을 안다면 강자에 약하게 굴면서 약자에게는 강하게

## 올해 신설된 기계공학과와 학생회실 확보의 강요실부족등으로 인한 공간문제 해결을 공대학생회가 학교당국측에 요구 하고 나섰다.

그간 공대 원호관의 강의실 부족과 실험실습기구에 설비부족 문제들이 학교측에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기계공학과(정원60명) 신설로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 민중후보 지원금 마련 공언

민중정당 독자정당지와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서울지역 학생선거운동연합(의장=윤재호·서울대 국제경제4)추위의 민중후보 지원금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1992. 3월...'을 위한 준비를 위해 지난 7, 8일 양일간 서충원소속 학생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교 중앙관에서 열렸다.

## 직원 49명 승진및 인사발령 신규 13명도 부서 배치

학교당국은 지난 2일 계장급 이하 총49명(서울캠퍼스 34명, 경주캠퍼스 1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학과소식

- 국민윤리학과**  
92년 제1호 '윤리학보'에 게재할 과학생들의 시, 수필, 만화 등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
- 경제학과 정기총회**  
경제학과학생회는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11일) 오후5시 동관(2301)에서 갖는다.
- 미술학과**  
예술단원 전시발매 미술학과 발대식이 지난 9일 열렸다. 과운영위원 및 집행부소속, 노래대 공연 및 공중제비 등을 통한 92년 원년 도약을 결의.
- 연극영화학과**  
92학년도 연영과 신입생연영 및 2학년 실습공연 '안개'가 오늘(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후4시, 6시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막을 올린다.
- <신인생환영회>**  
야간과장 경영학과 내일(12일) 오후5시 동관 식당.

### 시사저널과의 대화로 비전을 정립하십시오

시사저널은 짧은 지성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정기구독신청 : (02)733-3330

### 오늘 우리의 TV문화를 생각합니다

TV는 있어 TV문화가 없습니다. 비디오는 흔하되 비디오문화가 없습니다. 연예 오락은 있어 건전한 비판적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중문화란 그저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보성, 오락성, 비판성의 세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건강한 대중문화를 제시하는 TV저널 - TV저널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 모두의 대중문화를 반성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주간 TV정보지입니다. 지금, TV저널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의 진실을 찾아나서십시오.

TV저널 정기구독신청 : (02)720-8111

**[주] 국제언론문화사 (IMI)**

지방지사 부산: 643-5560 대구: 256-0481 인천: 421-3361 광주: 522-0123 대전: 632-4814 전주: 86-0108 울산: 67-2892 포항: 42-0952 청주: 67-0627 제주: 57-1995 고령: 35-3331 강릉: 44-3400

3·8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본 직장내 성차별

여성이기에 두번 버림받는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준다.” 설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대 사회에서 생길리 만무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여학생을 경시하는 남학생이 없지는 않다. 가장 위풍당당한 눈으로 늘어난 여학생을 보고 짐작치 못한 생각을 떠올리거나 술자리에서 난잡한 음담패설을 나눈다든지, ‘여자가 무슨 공부야 취직이냐’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경을 깨는 일이 허다합니다”라고 밝힌다. 물론 대학내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직접 가하는 폭력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도 제기했듯이 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노레 또는 애기를 나누며 만족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행위 가 바로 간접 성폭행 아닐까. 한편 직장내 폭언을 살펴보면 “이 X X야, 그만두지 못해” 등은 예사이고, 회식때 다리를 주무르거나 어깨를 걸치는 일, 회사 복도를 지나면서 등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여성들을 인격체가 아니라 노리개로 취급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또 성적학대도 종종 행해진다. 당시자에게 수치심을 불어넣음으로써 직장내 노조활동을 탄압하거나 통제수단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여성민주회로 접수되는 전화제보에 의하면 어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만들어는 통제책의 일환이다. 남성노동자들에게 대해 이렇듯 내 여성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두말 할 것도 없으며



◇현재 각종 여성단체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특별법제정에 힘쓰고 있다.

반말-욕설-구타에 성적 희롱까지 당해 가부장적 사고로 인격체 아닌 노리개 취급

“여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준다.” 설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대 사회에서 생길리 만무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여학생을 경시하는 남학생이 없지는 않다. 가장 위풍당당한 눈으로 늘어난 여학생을 보고 짐작치 못한 생각을 떠올리거나 술자리에서 난잡한 음담패설을 나눈다든지, ‘여자가 무슨 공부야 취직이냐’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작은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직원들이 성을 매개로 관계를 형성해 서로를 분열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성이 기를 못먹는 직장내에서 폭행, 폭언, 추행을 당해도 보복과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즉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받으며 주위의 평판, 유족 여부 등 피해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문제삼아 적인 취급을 받는다. ‘능력’이 있는데도 일감이 못됐다는 이유로만 취직이 안되는 여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다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여자가기 때문에 폭행, 폭언, 추행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를 먼저 깨부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경애 기자>

모두 반영하고 있다. <경문출판사 9천원> ◇20세의 원전(상·하)···이 책은 삶에 대해 더없이 진지하고 냉철한 의식을 지닌 여대생 에코코의 실화 일기로 감수성이 뛰어나고 문학성이 풍부한 그녀의 재능이 잘 나타나 있다. <국립문학사·각권 4천원> 공연 안내 ◇철폐운동···지배집단의 부패와 도덕성상실을 슬취한 언어로 풍자한 국으로 정치권, 사이버교육자, 술주정뱅이, 옛날타령밖에 모르는 늙은 독재자 등 온갖 기득권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비열한 정치 사극이다. 3월17일부터 4월6일까지 오후 7시30분(금·토·일요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 학원소극장 763-8233 ◇꿈바···일제암락의 식민지시대부터 자유당 말기까지 전극을 떠돌며 살다 간 한 각설이배 대장의 일

우리가락에 심취해 절로 어깨가 들쭉

‘굿패 혼플’을 찾아서

순수비전문인들의 모임인 풍물굿패 혼플은 지난 3월3일부터 4월2일까지 호남과도 풍물교실을 개최한다. 이 모임은 풍물굿이 가지는 정서와 신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1988년 3월 창단했다. 학생·직장인을 포함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혼플은 호남과도 중에서 필봉리마을 하며, 굿패 혼플 상쇠인 남기원씨와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된 양승용씨가 특별지도를 한다.

남짓한 혼플의 ‘타’에서 더욱 엿 보인다. 고깔과 장구, 북등으로 벽을 단장한 이 작은 공간에서는 지도하는 남씨를 비롯해 모든 학생들이 우리 가락에 취해 시간가는줄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는데 배를 수북 모한 때를 느껴요.” “풍물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는데 배를 수북 모한 때를 느껴요.” “풍물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



◇굿패 혼플 회원들이 필봉리를 신명나게 치고 있다.

다는 의무감이 생겼다”라는 말처럼 우리가락이 귀에 익고 여기에 심취한 나머지 절로 어깨가 들쭉이 고 흥이 난다. 한시간 가량의 풍물교실을 마치고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장구, 징, 쇠 등을 들고 흥겹고도 신명나게 노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 멀리 저하에서 가까스로 우리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가’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저하에서 쉬임없이 새어 나오는 풍물소리가 언제쯤이면 자랑스럽게 곳곳에 울려 퍼져 우리들 모두의 가슴에 와 닿을지...

풍물굿은 지금까지 계속 쇠퇴의 길을 걸어왔고 현재 외세문화의 범람속에서 그 정성이 단절된 듯이 보이지만 풍물굿은 엄연히 살아 있다. ‘민중의 삶’ 자체이므로. <소>

수화물 읽시다 ②

청각장애인은 누구인가

청각장애란 음파를 받아들여서 전달해 주고 분석하는 청각기관의 기능이 어떤 원인에 의해 약해졌거나,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청각장애인이라 한다. 청각장애는 열병이나 뇌막염, 내이염 등 여러가지 질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거나 항생물질등의 부작용 혹은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임신중 모체의 풍진이나 약물 부작용으로 태아에게 청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오늘날 각종 약물의 남용과 교통사고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청각장애의 발생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각의 장애를 언어습득 후에 얻으면 말을 할 수 있고, 언어습득 이전에 장애를 얻으면 말을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언어습득 이전에 청력을 상실한 경우라 할지라도 간혹 청력을 이용해 듣기, 말하기 교육을 꾸준히 받으면 언어발달과 대화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의사소통의 장애를 수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듣지도 말할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울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수화란 무엇인가 수화는 청각 장애인들과 의사소통 방법(필담·구화·수화)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미국의 의사이며 선교사인 로제타 부인이 중국 신원여행중에 농아화교를 시찰하고 1909년 평양 맹아학교내에 농아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흔히 일반인은 수화가 세계 공통어로 생각하지만 실은 나라마다 다르며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이므로 건청인이 사용시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손짓사랑회>

일방적으로 관객의 이해를 요구하는 태도는 어쩌면 그 노동자가 보았던 사회주의자의 한 면일 것이요 또한 정태춘씨의 ‘떠나가는 배’ 역시 불안정하고 허공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누군가 ‘도도한 풍물들’의 호명은 딱지 말라고 했었다. 이는 갈수록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대의보다는 사소한 자긍심에 암사당한 선전활동(?)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같은 것,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과는 그저 눈 딱 감고 빠달리는 생각, 힘든 일을 한다는 핑계로 남들이 자신을 이해해줘야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흐르며 돼 버린 것 같다. 자꾸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점점 ‘도도한 풍물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때, 이방 변화하는 세상 화끈하게 변화시켜보자, 단 자기정화를 담보로 해서 말이다. <소>

이방적으로 관객의 이해를 요구하는 태도는 어쩌면 그 노동자가 보았던 사회주의자의 한 면일 것이요 또한 정태춘씨의 ‘떠나가는 배’ 역시 불안정하고 허공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누군가 ‘도도한 풍물들’의 호명은 딱지 말라고 했었다. 이는 갈수록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대의보다는 사소한 자긍심에 암사당한 선전활동(?)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같은 것,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과는 그저 눈 딱 감고 빠달리는 생각, 힘든 일을 한다는 핑계로 남들이 자신을 이해해줘야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흐르며 돼 버린 것 같다. 자꾸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점점 ‘도도한 풍물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때, 이방 변화하는 세상 화끈하게 변화시켜보자, 단 자기정화를 담보로 해서 말이다. <소>

잠깐 생각해봅시다 ③

새식귀를 진정 원한다면

학기초엔 캠퍼스 곳곳이 구인광고(?)로 도배가 되기 마련. 각 동아리, 학생회등에서는 저마다 새식귀를 맞으며 열정이 한창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대자보가 있는가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법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길을 끌게하는 대자보도 등장. 신입생들의 눈동자는 분주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잔뜩 호기심을 만나서 동아리방을 찾아가든 새내기들은 가끔씩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한다던데요. 대자보는 그럴듯하게 붙여놓았는데 막상 동아리방엘 찾아가 보면 문이 잠겨있거나 인적조차 구경하기 힘들때도 많아 발길을 돌리는 신입생들은 적잖은 실망을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전부가 아닌 일부일겠지만, 선배는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요. 아무리 도둑없는 살기좋은 동아리라고 하지만 손님을 초대해 놓고선 집을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부>

문화원신

새로나온 책

◇살아나는 임진강...한미 행정협정 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62년 1월 5일 ‘파주 나무꾼 피살 사건’과 그 유가족의 훗날을 좌우 공개하는 실록소설. 월간 ‘말’지를 통해 4년여동안 주한미군법외사를 취재해온 작가 오연호는 이사건의 전말과 줄거리를 아비지를 여인 한 여인이 겪어야했던 통탄의 삶을 추적함으로써 문학적 급기의 대상이었던 미국-미군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들배개 4천원> ◇남북한의 방언 연구...본교 국문과 김영배교수의 저서로 각 방언의 특징과 연구실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금서해금에 따라 최근의 북한방언연구까지를

괴이귀

▲얼마 전 ‘사회주의자는 언제나 정당하기’라는 한 노동자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에선 흔히 ‘운동합체’하는 사람들의 자기감정의 논리와 궤변, 풍파성을 따질까 비관하고 있다. 맺을 읍기엔 ‘너와 나는 다를 수 밖에 없으니... 내가 원칙을 강조하면 정통이요, 네가 원칙을 강조하면 교조주의라. 내가 어찌하고 오늘이 다른 것은 유언해서지만 너의 변화는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내가 잠시 침묵하는 것은 신중해서지만 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일... <충량>’이라는 칼럼으로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또 하나, 며칠전 우리의 민중가수 윤선애의 공연이 매우 성황리에 열렸다. 관객들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1시간이나 배를 서야 했고 몇몇 불운한(?) 관객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렇

도도한 풍물들

출연한 정태춘씨는 ‘요즘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들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서는 부를 노래가 없다’며 예의 ‘떠나가는 배’를 불렀다. 왜 그는 사람들의 정서를 상품화하지 않았던 그의 공연을 뒤로한 채 다시 ‘떠나가는 배’를 불렀을까. ▲윤선애의 공연에서 보인 기획자들의 무성의함과



독서문화대학 '92년도 신입회원 모집.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같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장래가 걱정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신적 가치와 도덕성을 무시한 채 외형적으로 치달다보니 정신문화 부재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 선진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위면적 가치보다 교양과 실력, 도덕성이 존중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한우리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설립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회장 김 후 영 (연세대 명예교수)

※ 저희 단체는 ·기독교세무대학 ·교도소소재독서대학 ·국군장병독서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